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0.3~10.7)

1. 수출규제 관련¹⁾

□ [일본 기업 동향]

- 닛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개별허가로 전환된 반도체 3개 소재를 생산, 한국에 납품하는 일부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o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모리타화학의 한 간부는 “9월 중 수출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수출 재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10월 중이 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한다.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하루라도 빨리 수출 재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고 하였음.
- o 스텔라케미과(불화수소) 간부도 “10월 4일 시점에서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계속 심사중이며, (수출 가능)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한다” 고 상황을 밝힘.
- 한편 수출허가가 난 기업의 경우, 처음 수출 관련 절차는 서류 미비로 거부당하는 등 경제산업성과 몇 차례에 걸쳐 진행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음.
- o 이 제조업체는 2회차 수출부터는 필요한 절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고 하였음.
- o 한편 10월 5일자 기준으로 개별허가 대상 소재들의 수출허가 건수는 각각 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3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임.

□ [일본 정부 동향]

- 일본 정부는 개별허가 관련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약 90일 정도로 예상

1) 「日韓対立、長期化に懸念、輸出管理厳格化から3カ月、半導体材料、現段階で許可7件、解決へ道筋見えず。」
『日本経済新聞』(2019. 10. 5).

- 스가와라(菅原) 경제산업성 장관은 10월 4일 “1건 1건의 안전에 대응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는 방침을 표명

□ [일본 언론 동향]

- 닛케이(日経)는 일본이 부품·소재를 공급하고, 한국이 완성품을 제조하는 분업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서 한국 내에서도 최첨단 소재의 국산화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고 보도
- 한편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WTO에서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대립 등 한일 관계는 긴장이 감돌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 무역 상대국인 만큼 관계 악화는 그대로 경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2.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 [동향]

-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가 10월 4일 발표한 9월의 신차 등록 추이에 의하면, 일본산 브랜드의 승용차는 약 1,100대로 전년동월대비 약 60% 감소
- 이는 8월의 약 1,400대(전년동월대비 약 57% 감소)와 비교했을 때 또다시 감소한 수치
- 이에 따라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9월 16%에서 5%로 급감

□ [일본 언론 동향]

- 닛케이(日経)는 일본산 자동차의 판매 감소는 7월 초순부터 시작된 자동차, 맥주, 의류 등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불매운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양국 간 관계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논평²⁾

3. 아베 총리 및 주요 인사의 한일 관계 언급 관련

□ [일본 정부 동향]³⁾

- 아베(安部) 총리는 10월 4일 임시국회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라고 언급
- o 아베 총리가 연설 가운데 한국을 언급한 것은 2017년 1월 이래 처음임.
- o 한편 한국을 언급한 이후 “국제법에 근거, 국가간 약속을 준수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싶다” 고 발언
- 모테기(茂木) 외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 “(한국과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만큼 중요한 때는 없다” 고 발언
- 한 수상관저 간부는 “지금은 관계가 꼬였지만, 한전보장을 생각할 때 (한국은) 중요한 국가다.” 라고 함.

□ [일본 언론 동향]

- 마이니치(毎日) 신문은 총리가 한국이 중요한 나라라고 하였음에도, 기존에 사용하였던 ‘매우 중요’ 라는 표현은 피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논평⁴⁾
- 산케이(産経) 신문은 총리의 “한국은 중요한 국가” 라는 발언과 관련, 해당 메시지는 한국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비판적인 한국 내 일본 우호파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⁵⁾
- o 또한 2018년 10월 소신표명 연설 당시 북한 문제와 관련, “한미일의 약속” 이라고 했던 표현을 이번에는 피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지

2) 「韓国、日本車販売6割減、9月、不買運動なお続く。」 『日本経済新聞』(2019. 10. 5).

3) 「安倍首相：首相演説 日韓関係に言及復活」 『毎日新聞』(2019. 10. 5).

4) 각주 3의 마이니치 신문

5) 「韓国と距離 対中は融和」 『産経新聞』(2019. 10. 5).

소미아 종료 결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논평

4. 한국 정부의 일본 정부 미사일 분석 정보 요청 관련⁶⁾

□ [일본 정부 동향]

- 일본 정부는 북한이 10월 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응해 일본이 분석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
- 일본 정부 관료는 “지소미아 협정 자체는 11월 하순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정보 요청을 거부할 생각은 없다” 고 발언
- 외무성 관계자는 “정밀도가 높은 일본의 탐지 위성 영상 및 낙하지점에 가까운 일본의 각종 정보가 (한국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 이라고 논평
- 일본 정부는 탐사로부터 실탄의 착지까지 이르는 미사일의 상황을 한국이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 [일본 언론 동향]

-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협정의 중요성을 호소하면서, 종료 결정의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보도

4. 한국인 관광객 감소 관련⁷⁾

□ [일본 정부 동향]

- 한 일본 언론 매체는 한일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기 관광명소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
- 일본의 한 전문가는 “일본 관광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6) 「政府、韓国に情報提供へ 協定破棄の撤回促す 北朝鮮ミサイル」 『静岡新聞』(2019. 10. 4).

7) 「韓国人客消え…ため息 8月半減 長期化も、観光業に打撃」 『産経新聞』(2019. 10. 3).

다” 고 전망함.

- 오사카의 한 유명 시장은 평일 관광객의 약 80%가 외국인으로 그 중 20%는 한국인인데, 현재 한국인 관광객은 제로 상태
- 일본정부관광국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일본 방문객 전체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8월 일본 방문 외국인수는 전년 동월대비 약 2.2% 감소
- 방일 외국인 관광객 동향에 밝은 와카야마 대학교의 한 교수는 “관광산업은 재해 및 정치 문제에 영향을 받기 쉽다. 한국 외 국가로 일본 방문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파급될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 이라고 하면서 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성을 지적